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희망을
키웁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 입니다

표지사진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두 병사, 평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2015 신년호 통권 제86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특집
대북지원 20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목차

- 신년인사** 2015년 힘을 모아주십시오 03
- 화보** 후원의 밤 04
- 특집** 대북지원 20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06
- 사업보고**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08
- 2014 북한 신년사 분석 토론회 10
- 길림성 장춘시 룡원구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 12
-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진행 14
-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3기 15
- 청소년 평화특강 16
- BaB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17
- <북민협> 정기총회 개최 18
- 인턴후기** 서둘러도 괜찮아, 인턴이야 20
-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2
- 후원자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5년 3월 10일 **주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나모에디트(주)

고문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김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무원, 박남수, 박준영, 손진우, 원혜영,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이재술, 이흥우, 전정희, 정석주, 종호, 천정배, 최남선,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새해 2015

신년인사

푸른 기운을 품은 2015년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후원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청양(靑羊)의 기운을 받아 늘 진취적이고 원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은 여전히 활로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2014년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20년 역사에서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우리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지원지역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였으며 대북지원 규모 또한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0년의 1/4 수준에 머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사업(BaB 캠페인) 만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과 각종의 평화교육, 정책활동 등은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2,00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에 동참해 주셨고 그 결과 4개의 중국 조선족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동력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동포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동포를 돕고자 하는 관심이 약화된 것은 단순히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축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품격, 실천적 동포애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더 노력하지 못했음을, 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초심으로 돌아가 올 한 해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남북한의 평화와 통합 운동, 그리고 해외동포 지원사업을 쉼 없이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북지원 20년을 맞아 국내외 대북지원 단체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내외에 대북지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주창사업을 열심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경사되지 않고 그저 평화와 나눔 정신에 공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성과 창립정신만을 활동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올 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후원자 여러분들의 더 큰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두 병사(兵士), 평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작년 11월 27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은 특별히 그림책 『적』의 이야기를 빌어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병사(兵士)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한반도와 그 가운데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한

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후원자님들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갈등을 낮추고 보다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의 밤에 참석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는 공연 소망재활원 '천사들의 하모니' 밤벨 연주



축하말씀에 정의화 국회의장



두 병사, 평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오후 6시30분



인사말을 전하는 영담 상임공동대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정숙, 현대로지스틱스(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평중학교 비행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덕중학교 WATW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an gudgeon



축하공연에 국악가수 유성실



내빈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는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대북지원 20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2015년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다. 분단과 함께 맞이한 광복이 70년을 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고 남과 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무거운 질문으로 글머리를 연다.

손종도 기획홍보팀 부장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2015년 올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올해가 대북 인도지원이 2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은 20년 전인 1995년을 대북 인도지원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물론 95년 이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일부 있었다. 국내 일부 단체들이 1994년 북한에 의료 기자재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종교계에서 옥수수 500톤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5년 9월 이후로 보고 있다. 북한의 수해 발생과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호소를 계기로 1995년 9월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었으며 또한 실제적인 지원운동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 대북 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단체들이 창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제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해져야 하는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작된 국내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식량난 해소는 물론 농업축산, 보건의료, 산림녹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점차 개발협력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 기반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역할이 모색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간 정치적 사안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의 상황 요인과 국내외 정치적 환경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대북 인도 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위축된 대북 지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서도 별다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벌써 5년이 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대북 지원의 실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가령 물자 분배와 관련한 모니터링 논란은 실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펼쳐왔던 민간단체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민간단체 사업의 경우 1회적인 지원으로 그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부의 식량 지원과는 달리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의 양태를 띠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물자 전용의 우려나 모니터링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유엔 기구나 유럽의 국제 NGO들은 평양 상주를 통해, 남쪽의 민간단체들은 거의 1주일 단위로 이어지는 잦은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개발지원 방식의 사업 특성상 남쪽에서 지원한 물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더 이상의 사업 진전이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남쪽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인도상황 개선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점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이러한 내용의 실마리를 우리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유럽의) NGO들과 한국의 NGO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축산업,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사실 국내 대북 지원 단

체들이 그동안 펼쳐온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한 협동농장에서 3년간 북한 주민들과 농사를 같이 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들을 해왔다.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 20년간 진행했던 대북 인도 지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최근 학계에서도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는 지난해 ‘접촉지대’를 화두로 삼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연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진행된 대북 지원의 경험은 한반도 갈등 상황의 진전 없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분히 대북 인도 지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다른 저개발 지역에 비해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적원조비용(ODA)의 약 37%가 분쟁 국가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한 국가도 단 하나의 새 천년개발목표(MDGs)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지역의 분쟁 및 국내외 정치적 상황은 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지원, 개발협력과 지역의 평화를 연계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평화를 고려한 지원 전략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대북 지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 갈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물자 지원을 넘어 북한이 가진 인도적 문제의 포괄적 원인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 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를 지향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이러한 전략 수립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은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향후 20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내외 대북지원 기구의 유일한 소통의 장

대북지원 국제회의

“북한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지원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 2014년 회의는 대북지원 기관들의 대북지원 전략을 논의한 1세션, 농업축산산림, 보건영양으로 나뉜 진행된 분과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년 회의에서는 지원 기관들의 사업 공유가 주를 이뤘던 데 비해, 올해는 개별 사업과 더불어 단체들의 중장기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최근 변화상과 인도적 상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 질문에 대

이예정 부장 평화나눔센터/정책팀

————— 지난 11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열렸다. 본 회의는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국내외 대북지원 NGO, UN기구, 연구자 등 40여 명 모였던 올해 회의에서는 단체들이 중장기 대북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해 케시 젤머거(Kathi Zellweger) 前 스위스국제개발처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변화 속도는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이에 맞는 대북지원 전략과 실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식량 사정 등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이 호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심각한 지역적 편차,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성격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한국 정부의 5·24조치는 하루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주도성(ownership) 제고, 지원 단체 간의 협력 강화

● 지원사업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사업은 외부 지원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스스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원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도 지원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들은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마다 북한의 카운터파트너가 다르고, 지원 기구들의 성격과 활동 반경도 달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해 회의에서는 국내외 단체를 막론하고 같은 영역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비닐하우스 지원, 보건농업, 보건의료인 교육 등) 사업 노하우와 지원 매뉴얼 등 내용적인 부분과 보다 나은 지원물품 구매방안 등도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북지원 20주년을 기념하며...

● 2015년은 대북지원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이래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외부 지원 단체들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는 2000년 이후 다양한 영역의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북간 평화의 다리를 놓는데 앞장서 왔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단체들도 줄어드는 기부금으로 인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에는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들이 존재하며,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제는 개발지원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며 회의의 마지막 세션은 2015년 회의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북지원 20주년을 맞아 2015년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대북지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향후 역할을 조명하며, 남한 사회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p>전체회의 1</p>	<p>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기구별 활동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경기도 ○미국 Christian Friends of Korea, 미국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Pralhad Shirsath(前 EUPS3 평양사무소장) ○IFRC 동아시아지역대표부 ○주한미국대사관 ○경기개발연구원
<p>분과회의</p>	<p>대북지원사업의 발전 및 기관 간 조정 /협력 강화 방안 모색</p>	<p><분과 1: 농업, 축산, 산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Kathi Zellweger(스텐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초빙연구원) • 발표: 권태진(GS&J Institute 북한동북아연구원장) <p><분과 2: 보건의료, 영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Erich Weingartner(Cankor Report 편집장)
<p>전체회의 2</p>	<p>종합토론 및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회의 리뷰 ○종합토론 ○폐회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토론회

서준희 인턴 한국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

— 지난 1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로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용환 연구위원의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을 시작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연구교수의 2015년 정세 전망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김갑식 부연구원,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정성임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야

● 최용환 연구위원은 2015년 신년사에서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 발전에의 필요, 원산-금강산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사업에 대한 강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6·28 조치’를 넘어서는 경제개혁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개방을 배제한 제한적 개혁조치가 될 것인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부문별, 고위급, 최고위급 등 다양한 층위의 회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반관반민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올 해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듯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정부 모두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나 통일 의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은 여기에 대응해 고려연방제를 재차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 “북한은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내세우며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그런 전략이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갑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신년사가 예년에 비해 과도한 수사를 지양하고 비교적 솔직한 내용을 담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6·15 선언 15주년 기념일이 올 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며 이를 위한 남북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김정일의 경제정책은 바로 성과가 나타나

는 건설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국영기업에 얼마나 많은 대내외 자본을 끌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합작기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투자재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가 북한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가하면 정성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사 구조에서 무기와 관련하여 구체화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카드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 사회를 맡은 최완규 총장은 한 소설 주인공의 말을 빌려 “현실주의적인 안목이란 화려한 구호나 이념, 제스처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카드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없는 카드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어진 카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여기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자 註> 2014년 12월 4일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록원구소학교에서는 7번째의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도서관 개관은 신한은행의 사업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신한은행 북한 COP(Community of Practice)의 차봉수 총무님이 짧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 록원구소학교에서는 곧바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록원구소학교의 김영철 부교장이 지난 1월 13일 보내온 감사편지도 덧붙였습니다.



네모상자는
네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상상해봐 자유롭게입니다.



2014년 12월 4일 개관한 록원구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에서 신한은행 관계자와 록원구소학교 선생님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

차봉수 신한은행 북한COP 총무

● 신한은행 통일금융위원회의 사회 공헌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동북3성 어린이도서관 지원』 사업의 첫 개관식이 2014년 12월 4일(목)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소재한 [록원구조선족소학교]에서 열렸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민족지원 해외사회공헌사업의 첫 사례로 주목받은 본 사업은 신한은행 내의 북한 COP(회장 박기찬, 총무 차봉수)가 전반적인 실행을 맡았으며, 소요 비용은 신한은행 임직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신한가족만나기』와 『사랑의

클릭』으로 지원되어 사업의 의미를 더 크게 했다. 이번에 개관한 도서관은 한글 책 부족 등으로 열악한 한국어 교육환경에 처한 록원소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및 현지 교육 당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장춘일보, 길림신문 등 중국 현지 언론들도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세워진 이번 도서관이 글로벌한 감각의 실용적 도서관이라고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업을 진행한 북한COP 회장인

박기찬 부장은 해외에서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한글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계속 교육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통일금융위원회와 북한COP는 이번 『동북3성 어린이도서관지원』 사업을 계기로 통일을 대비하는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미래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방학중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록원구소학교 어린이들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록원구소학교 김영철 부교장의 감사편지

새해 안녕하세요?
그사이 두루 바쁘다보니 연락 못했습니다.

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방학한 상태이구요. 도서관은 전에 제가 승낙 했던 대로 방학간 열린 활동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시작하여 12일까지 매일, 1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옥희 선생과 제가 자원봉사격으로 오늘까지 이틀째로 열었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평을 널리 받고 있습니다.

방학 중인데도 도서관 개관 때문에 휴식은 못하지만 도서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보답,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킨다는 저희들의 결심, 그리고 개관식 때 널리 사용토록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했던 승낙 등을 일거에 실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저희들의 방학간 도서관 개방행사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이라 생각되어 제때에 알리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계속 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며 지난해 저희 학교에 선사해준 도서관이라는 큰 선물에 다시 한 번 인사를 올립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개관식 행사가 그 뒤로 중국조선족어린이신문과 한어말어린이신문, 길림성 교육텔레비전방송에도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순리롭기를 기원합니다.

장춘에서
김영철 올림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진행

손중도 기획홍보팀 부장



김중성 계명대 교수가 그림책 읽어주는 시범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수에 참가한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의 표정이 다채롭다.

●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지난 2014년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조선족소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하구시 조선족학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한 '네모상자' 도서관이 지난 4월 개관한 곳입니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 동북3성의 18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총 22명의 도서관 담당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길림성의 남동쪽에 위치한 매하구시까지 오기 위해 흑룡강성 념안시조선족중학교의 한 선생님은 17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중국의 학교 도서관 운영 사례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연수 프로그램 참고) 이번 연수는 중국 현지에서는 2013년에 이어2번째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선족학교에 '네모상자'도서관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선생님 8명이 한국을 방문해 연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수의 한국인 강사진으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박영숙 관장과 현나라 사서, 대구 계명대학교의 김중성 교수와 경기도 용인시 서천초등학교의 이아영 사서선생님이 참여했습니다. 연수에 처음 참여해 강의를 해 주신 이아영 선생님은 자신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연변주 민족교육담당인 리천민 주임이 약 20년이 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양성과 독서, 교수 개혁과 독서 활동"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발표
10/23(목)	08:00~ 09:40	• 오리엔테이션	모든 참가자
	10:00~11:30	• 학교도서관 변화의 방향 - 미국, 일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중성(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3:00~14:30	• 중국 학교도서관 운영사례발표	함영란 교사(심양 서탑학교), 안태연 교사(오상중학교)
	14:50~16:20	• 한국 학교도서관 운영사례발표	이아영(서천초등학교 사서교사)
	16:30~17:30	• 종합 토론	
10/24(금)	08:00~ 09:40	• 좋은 독서프로그램이란?	김중성(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0:00~11:30	• 조선족학교 독서프로그램 소개	2개 학교 교사 발표
	14:00~15:30	• 학생대상 독서프로그램 시범수업 - 매하구소 6학년 한 개 한급 대상	이아영(서천초등학교 사서교사)
	15:50~17:50	• 교사대상 독서프로그램 진행	이아영(서천초등학교 사서교사)
	16:30~17:30	• 종합토론	
10/25(토)	08:00~ 08:50	• 도서관 도서분류와 정리의 중요성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 관장)
	09:00~10:30	• 도서관 도서분류와 정리 사례소개	이옥화(연변아동도서관 사서)
	10:40~11:20	• 도서 전시 사례소개 - 느티나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현나라(느티나무도서관 사서)
	11:20~11:50	• 도서관 전산프로그램 소개	평춘관(연변화동)
	13:30~15:00	• 학생양성과 독서	리천민(연변주 민족교육담당 주임)
15:20~17:20	• 종합토론과 평가	참가자 소감, 평가 발표, 연수 평가	

평화와 축구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장근영 기획홍보팀 간사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

● 청명한 가을 햇살과 함께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이 10월 11일부터 4주 동안 수원 울전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영국 브라이튼대학교 F4P(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의 매뉴얼을 적용하여 만든 독자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학부모님들께서 평화와 축구를 어떻게 함께 한다는 것일까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끝마칠 때면, 평화학과 스포츠를 결합

한 진행으로 신선하다는 평가를 높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거나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과 놀이를 접목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3기에서는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PI)에 참여했던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이 스텝으로 봉사하여 더욱 활기차고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축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축구교실은 경쟁과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권을 8~12주 동안 늘려서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도 재밌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사귀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친구를 만날 자신감이 생겼어요. 계속 칭찬 받고 서로 응원해주어서 힘이 됐어요. 횡수를 늘리고 2주 간격으로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 4원칙을 이해하게 된 것도 좋았어요.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함께 즐기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시작 전에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됐어요. 동생들, 친구들, 코치들과 함께 평등하게 사고하고 서로 존중하며 몸을 움직이게 교감할 수 있었어요.

석빈

세현

진교

“공동체와 나”



● 낙엽이 지던 가을의 일요일, 우리는 모였습니다.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I) 1, 2기 참가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명신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나, 같음과 다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은 어떤 특!을 나누었을까요?



성은제

평화라는 말은 추상적이어서, 흔히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은 매우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나 이번 평화 강연을 통해 평화라는 것이 꼭 대단해야 한다는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모여 KYPI 프로그램과 강연에 참여하니 뜻 깊은 시간이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힘을 합쳐 평화를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환

강의와 활동을 통해 누군가와 같이-함께 무엇을 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지낸다는 것은 소속감과 유대를 갖게도 하지만 자칫하면 외부와의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봤고요. 계속 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구본국

등에 그림이 그려진 쪽지를 붙인 채 서로 침묵하며 그룹을 만드는 게임을 했어요. 자연스레 똑같은 그림을 붙인 친구들끼리 서로 모이게 됐죠. 무슨 기준으로 모인 거냐고 강사님이 물으셨고, 전 당연히 같은 그림끼리 모였다고 대답했지요. 그때 강사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룹을 만들라고 했지 같은 그림끼리 모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순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BaB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 겨울을 맞아 더욱 움츠러드는 우리 마음이지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BaB캠페인(Bread and Balance)에 대한 후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시는 희망의 씨앗이 이제 겨울을 앞둔 북한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 어린이 돕기를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함경북도 온성군, 양강도 김정숙군, 평안남도 안주시의 유치원과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20톤의 옥수수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북녘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올 겨울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북녘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후원자 여러분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북녘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웨스턴테크닉, 동전 모아 북한 어린이돕기 성금 전달

● 매년 12월 막바지가 되면 어김없이 반가운 연락이 옵니다. (주)웨스턴테크닉에서 1년간 모은 성금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직원과

가족들이 꼬박 1년간 모은 동전을 모아 서로를 격려하고 기념하는 행사로써, 돼지저금통에 꿈을 담는다고 하여 “꿈돼지 축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이 성금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벌써 1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모은 동전은 무려 170만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 30만원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동전이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진 동전의 무게가 이 분들의 정성과 사랑의 크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주시는 뜻에 맞게 잘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태호 대표님을 비롯한 (주)웨스턴테크닉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민협> 정기총회 개최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족 간의 통일과 동질성 회복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북 인도적지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북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2014년은 대북지원 20여년 역사에 최악의 해였고 정부는 그동안 일부 물자를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을 제한하며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을 전면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날 총회에서는 회장단체로 월드비전, 부회장단체로 기아대책과 어린이어깨동무를 재선임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8개 단체를 상임위원단체로 선임하였습니다.

대북 인도적지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협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2014년은 대북지원 20여년 역사에 최악의 해였습니다.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원단체들이 북한 내 협력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이며, 민간 대북지원 규모도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0년의 1/4 수준에 머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당국 모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순수한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족 간의 통일과 동질성 회복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대북 인도적지원의 정상화는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고 막힌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을 전면 정상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북 인도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모자패키지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긴급구호 형

태의 지원에서 한 단계 높은 개발협력 형태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부터 국내 민간단체들이 통합적 개발협력,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자립마을 모색, 지속적인 개발협력으로 신뢰성 구축 등을 목표로 하여 20여 년 간 진행해 온 사업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일부 물자를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을 제한하며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인도주의 정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식량지원을 허용하고,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인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료, 못자리용 비닐 등의 반출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 인도적지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기존에 민간단체가 진행해 온 사업과 그에 소요되는 물자 지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대북 인도적지원이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자재, 설비 등의 반출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예산대로 올해 초 전면 재개해야 합니다.
-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한 대북 인도적지원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북 인도적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북 인도적지원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필요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 지속적,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인도적지원으로 이어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 사회통합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일담론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북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북 인도적지원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 추진원칙, 정책목표, 정책수단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올 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북 인도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한 나의 시간”



/ 끼아라 바랄도 CHIRA BARALDO



● 저는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석사과정 학생으로, 2015년 3월에 제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기사사태 당시 있었던 인도적 지원 분석이 출발점이지만 1998년 이후 2008~10년까지 한국 NGO가 기여했던 평화와 신뢰 구축,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포용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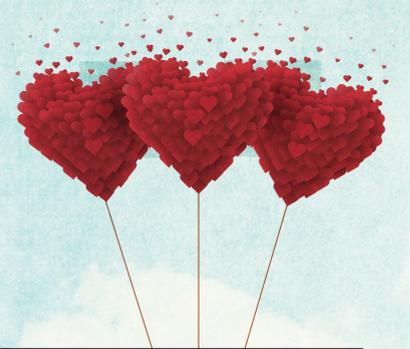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 계획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국의 주요 NGO의 하나로 매년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기에, 이곳에서 저는 이전 국제회의의 모든 프리시딩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제가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의 완벽한 배경을 알 수 있었으며 매우 유용하고 따끈따끈한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를 다른 많은 한국 NGO 실무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좋은 경험은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그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선택한 논문주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 분들은 저의 질문에 매우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고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의 매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참 좋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자들, 그들과 일하며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 팔을 활짝 열어 저를 환영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전혜림



● 지난 10월 초,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국제회의 업무 인턴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NGO단체로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한 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해 왔던 업무 때문에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업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것이 기계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공간은 저의 첫 생각을 한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국제회의업무를 돕고 어깨 너머로 다른 부서의 실무자분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은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곳에 계신 모든 실무자 분들은 개개인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푹푹 뭉쳐있었고, 그 따뜻함을 ‘우리’라는 한민족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일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꼭 필요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많이 있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NGO이기에 가능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기에 할 수 있는 그 일들 중, 작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값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상머리 공부보다 실무적인 경험도 쌓고 이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공간에서 그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저의 짧지만 알찬 이 시간은 제 기억과 마음 한 편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0월 2014년

- 7일 제60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북한 식량난, 정말 끝났나? - 기후변화와 북한 식량 위기 가능성
 - 발표: 최현정 박사(아산정책연구원)
- 9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DMZ 통일평화기행(경기도 파주 일대)**
 - 학생, 학부모 45명 참가
- 10~13일 사할린 고려인 문화제**
- 11일 제3기 어린이 평화추구교실 개강(수원 울전초)**
 - 초등학교생 22명 참가
- 20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주제: 남북 체육교류 사업의 발전 방안 - 아시아게임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 발표: 김효은(전 인천시 남북교류팀장)
- 22~26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현지연수(중국 매하구시)**
 - 도서관 담당교사 22명 교육 참가

12월

- 2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4일 중국 장춘시 녹원구조선족소학교 7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중국 장춘시)**
- 6일 e토마토 증권투자자모임 기부금 전달식(르네상스호텔)**
- 9일 조선족학교 도서관을 위한 한글도서 2만여 권 전달(수원 도서분류센터)**
- 19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심포지움(부산 삼광사)**
 - 주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통일
 - 발표: 성원용(인천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원동욱(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최치국(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23~30일 '한 교과서 날개를 달다' 중학교 수거활동**
 - 188개 학교 참여
- 29일 시민운동연합신선주 주최 '2014년 NGO대상' 수상**
- 30일 웨스턴테크닉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웨스턴테크닉)**

2015년 1월

- 11월**
- 1일 제3기 어린이 평화추구교실 중강(수원 울전초)**
- 6일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중국 북경)**
- 11~25일 '한 교과서 날개를 달다' 고등학교 수거활동**
 - 89개 학교 참여
- 13일 평화나눔센터 하반기 정책토론회(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주제: 인도적 대북지원, 이대로 좋은가?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북지원 모색
 - 기조 연설: 김성재(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연세대 석좌 교수)
 - 사회: 최완규(삼일공동대표)
 - 발표 1: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북한의 변화상 분석 - 전현준 박사
 - 발표 2: 접촉지대로서의 대북지원, 중간자로서의 대북지원단체 - 이우영 교수
 - 발표 3: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사업 방안 모색 - 강영식 사무총장
 - 토론: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 26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27일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개최(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30일 청소년 평화특강(회의실)**
 - 강사: 김명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KYPI 1, 2기 청소년 10명 참가
- 2일 2015년 신년모임(부민옥)**
- 3~6일 경기도 모교불러미 동아리 학생 조선족학교 방문(중국 삼차구소학교)**
- 8일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서울시청)**
- 9일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BaB 캠페인)**
- 11~12일 대북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현지 출장(중국 심양)**
- 20일 <북민협> 정기총회(프란치스코회관)**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복덕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9월	김갑수 10,000	김신영 10,000	김혜중 10,000	박성찬 10,000	송윤학 20,000	유명희 5,000
	김갑식 30,000	김신희 10,000	김홍석 10,000	박소희 10,000	송은숙 10,000	유성식 10,000
	김경태 10,000	김양수 30,000	김홍진 10,000	박순 10,000	송재천 10,000	유승주 5,000
(주)대용파마텍 20,000	김계순 5,000	김영모 20,000	김홍희 10,000	박순성 10,000	송재천 10,000	유원희 10,000
(주)리치스톤 5,000	김관식 20,000	김영수 10,000	김효은 20,000	박애스터 50,000	송정배 10,000	유윤숙 5,000
(주)삼성파워일렉트릭 10,000	김관호 10,000	김영주 10,000	김효정 10,000	박영근 20,000	송지영 10,000	유재진 10,000
	김광아 20,000	김영호 5,000	김희곤 20,000	박영철 10,000	신경서 10,000	유종석 20,000
(주)세진산업개발 100,000	김광열 10,000	김용영 10,000	김희년 20,000	박용권 20,000	신경은 10,000	유지수 8,500
(주)신도데이타통신 10,000	김광진 10,000	김환배 20,000	김화선 20,000	박원규 10,000	신기호 10,000	유진상 10,000
(주)여행이이야기 10,000	김구철 10,000	김용국 30,000	김희순 10,000	박유중 10,000	신동식 10,000	유피에스시스템(주) 3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김근우 30,000	김용현 10,000	나선길 100,000	박의용 10,000	신동해 5,000	
(주)창이앤지 30,000	김금순,이호준 30,000	김용희 5,000	나원연 30,000	박인숙 60,000	신상문 10,000	윤광운 5,000
(주)클린피에스엠80,000	김금영 25,000	김우희 5,000	나원연 20,000	박인숙 10,000	신수억 10,000	윤미화 10,000
김복조 10,000	김기원 10,000	김우영 20,000	나은우 20,000	박재욱 10,000	신승걸 10,000	윤병현 10,000
강경중 20,000	김기은 50,000	김우진 10,000	나은우 20,000	박정란 10,000	신정식 10,000	윤서영 5,000
강경현 10,000	김기만 10,000	김원영 10,000	나중문 20,000	박정자 10,000	신준석 10,000	윤성훈 10,000
강남준 10,000	김길자 20,000	김은경 10,000	나창윤 20,000	박종록 10,000	신진현 10,000	윤성진 10,000
강달호 10,000	김길철 5,000	김은경 3,000	남미림 20,000	박종윤 20,000	신홍수 20,000	윤송림 50,000
강동환 20,000	김나홍 5,000	김은경 3,000	남성돈 10,000	박주현 5,000	심경란 50,000	윤시현 10,000
강병희 10,000	김남준 10,000	김은혜 10,000	남세현 5,000	박지연 20,000	심나리 10,000	윤신원 20,000
강성미 5,000	김대성 20,000	김은희 10,000	남정현 10,000	박지용 10,000	심말선 10,000	윤영복 5,000
강성부 10,000	김대영 5,000	김응수 10,000	노관숙 10,000	박지호 10,000	심현희 10,000	윤종식 10,000
강승원 20,000	김대희 5,000	김익곤 10,000	노윤미 10,000	박현철 10,000	심영화 20,000	윤종원 10,000
강승희 10,000	김대중 5,000	김인성 10,000	노인선 20,000	박형중 30,000	안상화 5,000	윤주인 30,000
강신 10,000	김덕희 10,000	김일성 100,000	노정환 20,000	박혜영 50,000	안성주 10,000	윤지열 10,000
강원호 20,000	김도규 20,000	김일환 10,000	노제승 10,000	박희순 10,000	안세봉 20,000	윤창빈 10,000
강익범 10,000	김동근 20,000	김정훈 10,000	노춘봉 5,000	박희운 10,000	안약천 30,000	윤창식 10,000
강정미 5,000	김동진 10,000	김재범 10,000	노호균 20,000	박치범 10,000	안영숙 5,000	이강기 50,000
강정음 10,000	김동천 10,000	김재욱 20,000	도재영 10,000	방재만 5,000	안정덕 5,000	이강희 5,000
강지영 50,000	김동환 30,000	김재홍 10,000	리병화 10,000	방현섭 10,000	안정식 10,000	이경미 5,000
강창구 10,000	김동진 10,000	김정미 10,000	류새남 10,000	배강우 10,000	안정훈 5,000	이경재 10,000
강채원 20,000	김명희 10,000	김정미 10,000	류새벽 20,000	배덕호 10,000	안종금 5,000	이경희 10,000
강천일 20,000	김미홍 10,000	김정숙 20,000	류용성 5,000	배수현 20,000	안종출 5,000	이규설 5,000
강필희 5,000	김민근 10,000	김중국 10,000	류이근 10,000	배수현 20,000	양관술 20,000	이근덕 30,000
강필희 10,000	김민재 10,000	김중순 10,000	류재호 5,000	배정민 20,000	양근성 10,000	이근태 10,000
강혜경 10,000	김병구 5,000	김중현 20,000	류정숙 10,000	배향란 20,000	양문수 10,000	이근행 10,000
강희주 5,000	김병규 10,000	김종혁 10,000	류정현 5,000	백낙서 10,000	양미아 20,000	이기호 10,000
경진TRM 20,000	김병국 10,000	김주영 50,000	류현선 10,000	백도인 30,000	양순화 10,000	이기화 10,000
김기철 10,000	김병수 10,000	김주완 10,000	류화자 20,000	변선애 20,000	양우성 10,000	이남재 5,000
고봉근 10,000	김병준 100,000	김주태 5,000	마경화 20,000	변진석 10,000	양윤정 2,000	이남철 10,000
고석주 10,000	김상수 20,000	김주혁 10,000	마영락 10,000	봉미란 10,000	양인보 20,000	이대호 10,000
고세람 10,000	김상현 50,000	김준석 20,000	마영중 20,000	서기원 30,000	양진성 5,000	이동민 10,000
고정수 20,000	김상천 50,000	김준영 10,000	문주승 5,000	서동화 20,000	양해준 10,000	이동섭 10,000
고정환 20,000	김상근 20,000	김준현 200,000	문경순 5,000	서명호 20,000	양희성 10,000	이동수 10,000
고진광 10,000	김상범 30,000	김중수 10,000	문미영 5,000	서민희 10,000	양희철 5,000	이동영 10,000
고창훈 30,000	김상수 10,000	김중호 30,000	문성권 10,000	서순희 10,000	양기철 10,000	이동원 10,000
고희갑 10,000	김상식 10,000	김지선 20,000	문수정 50,000	서연우 10,000	양규현 10,000	이명수 10,000
공은영 10,000	김상영 10,000	김지숙 10,000	문찬기 50,000	서욱주 20,000	양동현 10,000	이미래 5,000
곽동선 10,000	김상운 5,000	김지연 10,000	문희정 10,000	서정호/석지훈 10,000	양철 50,000	이민영 10,000
곽연실 10,000	김석진 10,000	김진문 10,000	민현주 10,000	석지훈 10,000	오계환 10,000	이민재 10,000
곽재원 10,000	김석향 10,000	김진백 30,000	민정희 5,000	석찬희 10,000	오문백 30,000	이병도 10,000
곽현 10,000	김선영 5,000	김진현 10,000	박기호 20,000	성낙준 5,000	오세호 10,000	이병동 10,000
구기모 10,000	김선미 5,000	김진현 9,000	박남용 50,000	성열찬 10,000	오소영 10,000	이병재 10,000
구수영 10,000	김선배 10,000	김창순 10,000	박동우 5,000	송경일 10,000	오수경 5,000	이상복 10,000
구영주 10,000	김선창 50,000	김창연 10,000	박동호 50,000	송경환 10,000	오수형 10,000	이상엽 11,000
구정희 20,000	김선희 10,000	김태교 20,000	박무영 10,000	송광우 20,000	오준희 10,000	이상재 10,000
권병오 10,000	김성봉 40,000	김태순 20,000	박문식 30,000	송덕현 20,000	오형석 20,000	이상학 10,000
권보미 10,000	김성수 5,000	김풍기 50,000	박미란 10,000	송승호 20,000	오혜진 10,000	이상호 10,000
권숙희 5,000	김성숙 10,000	김학성 10,000	박봉우 10,000	송영주 10,000	오혜근 10,000	이상훈 10,000
권승언 10,000	김성우 10,000	김학신 10,000	박병진 10,000	송정아 10,000	오석용 50,000	이상용 10,000
권오근 20,000	김성진 100,000	김현 30,000	박복영 10,000	송진책 10,000	오환선 10,000	이선 10,000
권현우 5,000	김성철 10,000	김현삼 20,000	박성욱 50,000	송훈 20,000	왕정찬 5,000	이선 10,000
금휘식 30,000	김소영 10,000	김현성 10,000	박성일 20,000	송경민 10,000	우성호 10,000	이선규 10,000
기나영 5,000	김수람 10,000	김현우 30,000	박성일 10,000	송두현 30,000	원동우 10,000	이선호 5,000
길기관 10,000	김수현 10,000	김현자 10,000	박성일 10,000	송성용 10,000	원종남 10,000	이성민 10,000
길미성 10,000	김순환 20,000	김형재 150,000	박선숙 5,000	송성용 10,000	원효진 10,000	이성수 5,000
김창배 10,000	김승주 50,000	김형중 5,000	박선오 30,000	송상윤 30,000	유근호 30,000	이성주 10,000
			박성은 30,000	송성도 10,000	유남길 20,000	이성철 10,000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이성호 5,000, 이수구 100,000, 임동권 10,000, etc.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정현근 10,000, 정홍수 10,000, 정희범 10,000, etc.

룡천음악원

Table of donors for Ryongcheon Music Center, including entries like (유)명건설 10,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etc.

발렌타인

Table of donors for Valentine, including entries like 강대현 20,000, 강민수 10,000, 강병태 10,000, etc.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이영휘 5,000, 이윤범 10,000, 이용연 10,000, etc.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박상일 10,000, 박상희 10,000, 박성림 10,000, etc.

블로그그래드

Table of donors for Bloggrade, including entries like 강대균 10,000, 공용택 50,000, 김선희 50,000, etc.

해피반!

Table of donors for Happyban!, including entries like 숨은천사 10,100.

10월

Table of donors for October, including entries like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리치스톤 5,000, (주)삼성퍼워유티렉트릭 20,000, etc.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고정환 20,000, 고진광 10,000, 고창훈 30,000, etc.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김성수 5,000, 김성숙 10,000, 김성진 10,000, etc.

Table of donors with names and amounts, including entries like 박재욱 10,000, 박정우 10,000, 박정자 10,000, etc.

